

# “광주 복합쇼핑몰 구매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필요”

시의회 '소상공인 상생방안' 여론조사 시민들, 지역업체 우선 입점 등 제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보증지원 확대" 대자보 도시 정책엔 57% "찬성한다"

복합쇼핑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에 대해 시민들은 '구매 포인트 일부 지역화폐 전환' (67.61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안은 앞서 '대형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광주시민회의'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 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어 △지역업체 입점 우선권 부여 (67.04점) △구도심 연계 상권활성화 지원 (66.93점)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66.21점) △브랜드 지원 협업 공간 제공 (65.54점) △온라인 플랫폼 입점 (65.56점) 순이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82점), '보증지원 규모 확대' (8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 부담

에 대해선 시민(40.6점)과 소상공인(47.3점) 모두 복합쇼핑몰 측이 지자체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복합쇼핑몰 추진사업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시민들은 평균 58.57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전반적 유치·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은 37점으로 부정적 의견이 대세를 보였다. 부정적 사유에 대해선 시민의 45.3%는 '사업추진 속도 부진'을, 소상공인의 72.5%는 '소상공인과의 불충분한 소통'을 선택했다.

복합쇼핑몰 유치 개수에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40.7%는 '1개 유치 찬성, 3개 유치 반대', 35.0%는 '3개 유치 모두 찬성', 24.3%는 '유치 자체 반대'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 여론조사는 광주시의회가 풀인사이드에 의뢰해 광주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

700명과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10월 4일~18일까지 시행했다.

광주시 교통정책 여론조사에선 시민 56.6%가 대·자·보 도시 정책을 모른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67.7%, 30대 74.3%가 모른다고 응답해 젊은 층의 정책 인지도가 더 낮아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자·보 도시 정책 찬반을 놓고는 56.9%가 찬성했고 잘 모름 33%, 반대 10.2%로 집계됐다.

도로 다이어트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7%가 긍정 응답, 23%가 부정 응답을 해 도로 축소나 차량 흐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 대중교통의 주축인 시내버스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적 노선 개편(45.6%), 배차 간격 단축(24.9%), 시간 준수(16.7%), 운전 태도 개선(8.7%)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광주에 가장 필요한 교통정책으로는 교통수단 간 노선 연계(39.6%), 환승 시스템 개선(33.9%), 혼잡도 개선(15.1%), 상무광천선 신설 및 연장(9.7%) 순으로 응답했다.

복합쇼핑몰 이용 시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64.4%)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중교통(28%), 택시(5.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0일~10월 31일 시행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도,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추진

골목형 상점가 특화 브랜드 개발  
강진읍·해남 문내·무안 청계 선정

중점대학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3개 사업을 연계한 로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인 '한달이면 청계도 변한다'가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도, 무안군, 청계면 상인회, 목포대 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단·총학생회가 함께 추진하며, 지난 17일부터 8가지 세부 행사가 시작됐다. 로컬 커뮤니티 살롱인 '100배 식탁'과 '없었던 책방', 상권 아카이빙 프로젝트인 '언니들의 사진전' 등이 열리고, 상인 협력 클래스 '사장님 클래스'도 선보인다.

또한 '낯설이 있는 골목 축제', '없는 디자인, 없는 티셔츠'와 같은 로컬 페스타도 열리고, 목포대 학생들의 팝업 스토어 '나의 첫 번째 영끌'도 오픈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국립목포대 총학생회 대동제 기간에 집중돼 학교와 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골목상권을 조성, 생활인구 유입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서구, 오~잇길 걷기 대회

광주 김이강 서구청장과 주민 등이 지난 2일 서구 영산강 친수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3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에서 역새길을 걷고 있다. 참가비 '오(5)천원'의 나눔으로 우리 '이(2)웃'의 희망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은 오잇길 걷기대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 속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5.2km의 기적'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행사다.

나건호 기자

## 광주시, 캐나다와 비엔날레 파빌리온 문화교류

강 시장, 주한캐나다 대사 접견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시청 접견실에서 타마라 모히니(Tamara Mawhinney)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문화·첨단산업 분야 등 교류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에 참가하고 있어 '광주와 캐나다의 문화교류'가 주된 대화를 이뤘다.

강 시장은 "지난해 열린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방문에 이어 다시 한 번 광주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광주비엔날레

에 캐나다가 2회 연속 파빌리온으로 참여해 행사가 더 풍요로워졌다"며 환대했다.

모히니 대사는 "광주와 비엔날레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가 깊어지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청년·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2024 장흥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시 1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장흥군 용산면 소등섬 해안가 일대

지구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품은 생명의 요람입니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로 해양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청정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살아 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 바다와 접해 있는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은 물론 모든 사람이 바다살리기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최 전라남도 •장흥군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장흥군 용산면 소등섬 해안가 일대